

오순절 후 여섯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6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6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42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나” (통일 488)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6 번 시편 50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Psalm) 30:1-12, 고후(2 Cor.) 8:7-15	박은정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사랑 안에서”	찬양대
설 교 Sermon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You Might Become Rich)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29 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아” (통일 48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을 자주 들어왔지만,

우리는 존재보다 소유에 더 집착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진정 기도하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124-2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 8:9)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6/30 (주일)	7/1 (월)	7/2 (화)	7/3 (수)	7/4 (목)	7/5 (금)	7/6 (토)
	수3	수4	수5:1-6:5	수6:6-27	수7	수8	수9
본문	시126-128 사63 마11	시129-131 사64 마12	시132-134 사65 마13	시135-136 사66 마14	시137-138 렘1 마15	시139 렘2 마16	시140,141 렘3 마17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3수 오후7:30)	“모세의 섬감”(민14:11-20) - 한경준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7/6토 오전6:30)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시145:1-21)

지난 주일 (6/23)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후 6:1-10, 막 4:35-41)

오늘 본문(고후6장)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Charis)를 (무려) 154번이나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향해,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하는 은혜(하나님의 호의)는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호의)는 일종의 채무(빚)와 같아서, 마땅한 보은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고 고백했고, 또한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롬8:12)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빛진 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1)첫째, 그 누구에게도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고후6:3), 2) 둘째,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타인에게는 오래 참고 관대해야 하며(고후6:6-7), 3)셋째,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빛진 자의 마음(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